



한국 코카-콜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10층
코카-콜라 음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LG광화문빌딩



본 보고서는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산림관리 협의회)
인증을 받은 친환경 용지에 콩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100 YEARS OF THE

COCA-COLA BOTTLE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2015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코카-콜라가 되겠습니다”

2015년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2015년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지난해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이 추진해 온 환경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환경경영 활동 현황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의 정보를 고객과 지역사회, NGO, 정부기관 등의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를 통해 기업의 환경적·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환경부의 '2007 환경보고서 가이드라인(개정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코카-콜라 시스템의 각 공장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진행해 온 활동 현황과 성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데이터는 추이 비교를 위해 최근 3년간의 데이터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Contact Us

본 보고서에 대한 조언이나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다음 보고서 발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홍보부 구남주 이사

TEL 02-3271-3072 / E-mail nkoo@coca-cola.com

코카-콜라 음료, 해태음료, (주)한국음료

HES팀 김종석 파트장

TEL 031-8045-1534 / E-mail jongseok.kim@ccbk.co.kr

본 환경보고서는 FSC인증 친환경 용지에 공기를 잉크로 인쇄하였습니다.

contents

02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 목차

04 코카-콜라 CEO 메시지

2015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06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 History

08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시스템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관리체계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 정책 선언문

100년의 계획, 중심은 환경입니다

환경경영 활동

12 코카-콜라 환경안전보건방침 / 녹색경영 목표

14 환경경영시스템 / 환경사고 대응체계

16 환경경영 심사 / 환경성과 평가

100년의 실천, 변화가 시작됩니다

환경경영 실천

20 용수관리
용수 점검 및 관리 시스템 / 수질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비점오염원 관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 폐기물 관리

26 온실가스 관리
온실가스 관리 체계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탄소성적표지제도 / 녹색구매 실적

32 Special interview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

100년의 동행! 소중한 미래를 지켜줍니다

환경 커뮤니케이션

36 Earth Hour (지구촌 전등끄기) /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38 지역환경개선 활동 / 용어사전

“지역사회와의 행복한 상생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대표이사 이창엽

Paul C. Yi



대중문화의 아이콘이자 20세기 상품 패키지의 혁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코카-콜라병이 탄생한 지 올해로 100년이 되었습니다. 코카-콜라병은 누구도 모방하기 어려운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사물로서는 최초로 TIME 지의 커버를 장식하며 지난 100년 동안 술한 화제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제품이나 브랜드가 아닌 음료 용기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오랜 시간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기능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행복과 열정을 함께 전달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상쾌함을 전달하고 행복과 긍정의 기운을 전파하는 것을 미션으로 비즈니스를 해온 코카-콜라사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지속가능경영만이 코카-콜라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은 코카-콜라사의 지속가능경영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중 소비자들의 갈증 해소를 책임지는 음료회사로서 '수자원 보호'는 코카-콜라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환경 분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코카-콜라사는 2020년까지 음료 생산을 위해 사용한 것과 동일한 양의 물을 100퍼센트 자연으로 환원하는 '물 중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수자원 보호 프로그램들을 통해 1,850억 리터의 물을 지역사회로 환원하며 약 68 퍼센트의 물 중립을 이루었습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빗물 재활용 및

관계 농업에서부터 안전한 식수 및 위생 문제 해결 등 각 지역사회의 현지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환경재단과 함께 미래의 꿈나무들이 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국내 주요 람사르등록 습지 체험 프로그램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올바른 물 사용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빗물 재활용 프로그램인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음료 업체로서는 최초로 2007년 이래 매해 발행하는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환경과 행복한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코카-콜라의 노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국내의 환경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지난 한해 동안의 환경 성과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스스로 더 많은 채찍질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상쾌함과 행복을 전달하는 음료 회사로서 지역사회의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린경영을 실천하는
‘1등 음료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대표이사 정승화

정승화



언제나 코카-콜라 음료를 성원해 주시는 소비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합니다. 올해로 9번째 발간되는 2015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를 통해 환경성과를 소개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환경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코카-콜라 환경보고서는 당사의 환경경영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과의 소통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고 사랑받는 코카-콜라 환경보고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카-콜라 음료는 국내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해 기대했던 수준의 성장을 하지 못 했으나, 소비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으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경영환경은 험사리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하여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성원을 기반으로 하여 '1등 음료 회사'라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크고 작은 환경안전사고로 인해 많은 분들의 우려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코카-콜라 음료는 환경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설비 개선투자 및 환경안전 진단강화 등을 통해 위험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하고 건강한 기업이 되기 위해 사업장 노후 시설 교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과 같은 신규 환경오염 방지 시설 도입, 그리고 환경관리 시설 보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한 탄소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당사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및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리 및 제품의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음료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코카-콜라 500ml과 생수 제품 최초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휘오 순수에 대한 저탄소 제품 갱신인증 및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환경보호 활동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코카-콜라 음료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Earth Hour, 국제 연안 정화활동(ICC, International Coastal Clean-up), 1사 1하천 보호 활동 및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내실 있게 실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카-콜라 음료는 사회·경제·환경적으로 책임감 있는 기업 운영을 통해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건강한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 전략을 실현합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개요

전 세계적으로 코카-콜라는 원액 제공 및 브랜드 관리를 책임지는 코카-콜라사와 완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 등 영업을 책임지는 현지의 보틀링 회사, 이렇게 양사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보틀러(Bottler)'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틀러들은 공장과 운송수단 등 현지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투자를 담당하며, 현지 사정에 맞는 제품 믹스와 유통 전략을 구사합니다.

한국에서의 코카-콜라 비즈니스는 한국 코카-콜라(Coca-Cola Korea Company)와 코카-콜라 음료(Coca-Cola Beverage Company)라는 2개의 독립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카-콜라를 대표하는 한국 코카-콜라는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관리 및 프로모션을 담당하며, 코카-콜라 음료는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 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코카-콜라 브랜드 제품의 생산을 담당하는 자매사들이 있습니다. 해태음료는 자매사 중에서 코카-콜라 브랜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비중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현재 코카-콜라 시스템은 코카-콜라 이외에도 환타, 스프라이트 등의 탄산음료와 스포츠 음료 파워에이드, 미닛메이드 주스, 휘오 순수, 조지아 커피, 글라스 비타민워터, 씨그렘 등 한국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춘 새로운 음료들을 다양하게 선보이며 한국 음료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은 소비자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과 현지화된 전략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매출현황

코카-콜라 음료

1,000,892

해태음료㈜

271,115

※ 2014년 1월 1일 ~ 12월 31일 (단위 : 백만원)

코카-콜라 음료 & 해태음료㈜ 종업원 현황(2014년 12월 말 기준)

3,309

구 분	관리사무직	생산물류직	영업판매직	총 계
코카-콜라 음료	614	513	1,305	2,432
해태음료㈜	227	437	213	877

※ 2014년 12월 말 기준 (단위 : 명)

“1950년 한국에 처음 소개된 코카-콜라는 지난 60여 년간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생산 제품 현황

한국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로 대표되는 탄산음료뿐 아니라 주스·과일음료, 커피·차음료 등 24종에 달하는 다양한 음료를 생산하여 한국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국내 사업장 현황

코카-콜라는 최고의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지역에 8개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단일 유통망을 구축해 신속한 배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가 걸어온 길



“코카-콜라는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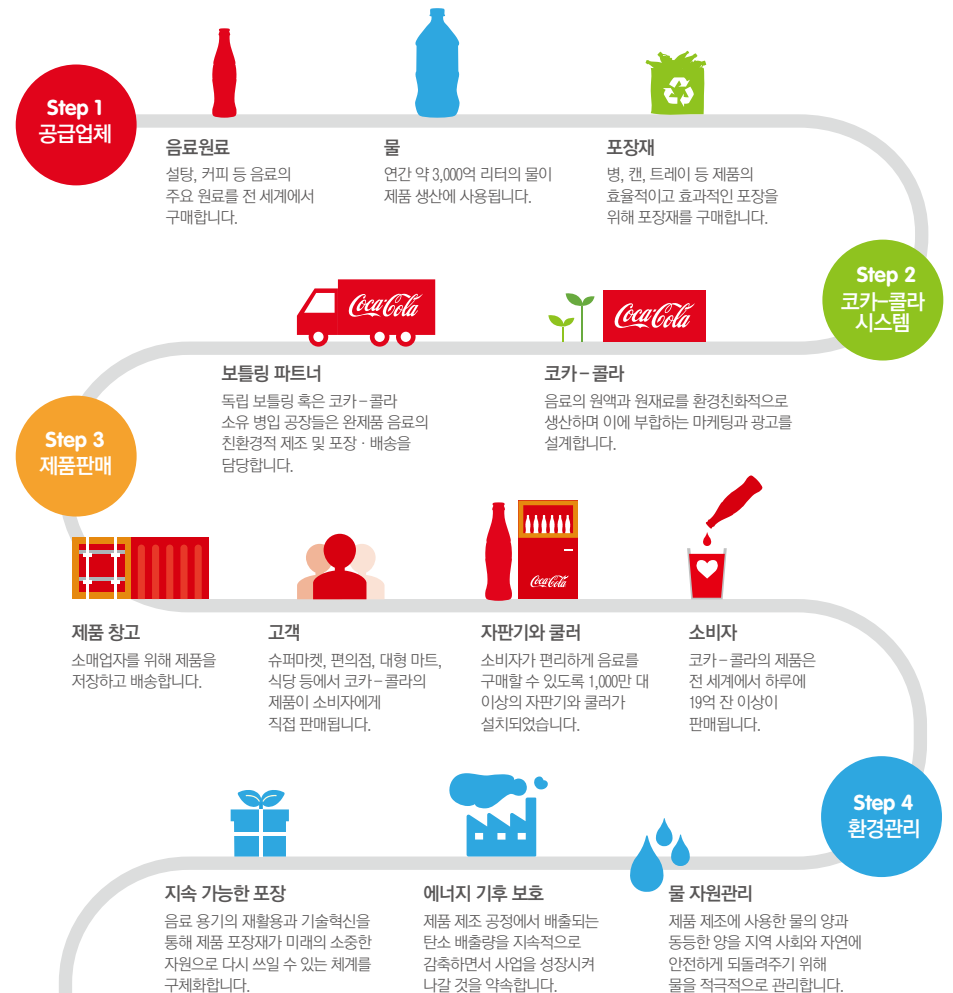
코카-콜라의 환경경영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코카-콜라사의 지속가능경영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음료의 원액 제조부터 최종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으로 협의된 환경경영시스템인 ISO14001의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법과 환경 이해 당사자의 요구 사항, 그리고 코카-콜라 자체의 환경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환경 안전에 대한 KORE(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경영시스템의 3대 목표



“코카-콜라는 체계적인 글로벌 환경경영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관리체계



글로벌 코카-콜라의 환경 정책 세부사항은?

경영 시스템 환경 정책과 표준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각 조직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 제공을 통해 환경성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합니다.

법규 준수 환경 관리와 관련된 코카-콜라의 요구 조건들(코카-콜라 사업 영역에 적용되는 모든 내부 요구 조건) 혹은 해당 법규의 요구 조건들(모든 해당 법규, 규정 및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칙) 중 보다 강한 법규를 적용되 그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임직원의 참여 및 교육 각 조직 임직원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명백하게 정의된 역할과 책임, 교육훈련, 의사소통 시스템, 참여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

위험성 평가 환경과 관련한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도출합니다.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 조건과 해당 법적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하고 주기적인 간격으로 평가를 진행 합니다.

위기 관리 및 해결(MCIR) 해당 법규 및 코카-콜라의 내부 요구 조건에 일치하지 상표와 브랜드 이미지, 회사 자산, 임직원, 계약자, 고객 및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환경 사고를 관리 합니다.

이해 관계자의 참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정부, NGO 등 다양한 공공 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력합니다.

글로벌 코카-콜라 환경 정책 선언문

전 세계 코카-콜라사(TCCC)와 보틀링 파트너들은 성공적인 비즈니스에 환경성평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이는 코카-콜라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기업 문화의 일부일 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코카-콜라 시스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TCCC와 보틀링 파트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전하는 한편, 환경에 미치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는 임직원들을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환경과 관련된 해당 법규 및 회사의 요구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

**100년의 계획,
중심은 환경입니다**



코카-콜라는 환경과 함께 성장합니다.

코카-콜라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경영 목표와 다양한 환경 지침들을 마련했습니다.
자체적으로 7대 환경안전보건방침 및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정부 환경 인증 프로그램 등을 준수합니다.

코카-콜라 100년 계획의 중심엔 환경이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자체적인 환경안전보건방침을 마련하여 모든 경영활동에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환경안전보건방침

코카-콜라는 세계 최고의 브랜드답게 경영활동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환경안전보건방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안전보건방침 상세 내용

1

환경안전보건방침 규정 준수

환경·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함은 물론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이행함으로써 수준을 향상시켜 나간다.

2

환경안전보건방침 목표 수립

모든 경영활동에서 환경·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목표를 수립하고 정기적인 진단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한다.

3

쾌적한 일터 만들기

사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임직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4

임직원 교육 및 실천

전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홍보의 주기적 실시를 통하여 환경·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하고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5

지역 환경보호활동 지원

환경보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활동성과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6

지역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지원

사내 외 협력회사와 환경·안전·보건 상생 협력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향 평가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7

환경안전보건에 관한 검토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문서화와 주기적 검토를 통하여 환경보전과 안전·보건 활동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저탄소 녹색경영으로 지구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목표

코카-콜라는 국내 환경 기준과 더불어 코카-콜라 자체 환경 기준(KORE) 준수를 위한 체계적인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녹색기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편, 전 세계적 환경 이슈인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성적표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등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녹색경영 체계 구축 3단계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 코카-콜라 환경시스템(TCCMS) 구축
- 환경경영 웹 시스템 구축



환경경영체제 확립 및 저탄소 경영체제 도입

-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발간
- 녹색기업 인증(광주, 여주)
- 공장 폐기물 감량 자발적 협약 참여
- 공장 수질 TMS 설치
-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 참여
- 페트병 재질, 구조 개선 자발적 협약 참여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참여
- 적극적인 환경보전활동 실시



저탄소 녹색경영 확립

- 녹색경영 추진 인력 양성
- 전 공장 녹색기업 인증 추진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동 업그레이드
- 제품 포장재 저탄소 재질 개선활동 실시
- 협력업체(SCM)에 대한 저탄소 경영활동 지원
- 녹색 구매 시스템 운영
- 전사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탄소성적표지 인증 확대
- 전사 배출권 거래 기반 구축
- 환경(탄소) 보고서/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코카-콜라는 환경보호를 위해 글로벌 기준 준수, 녹색기업 인증, 자체 환경보호 프로그램 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환경경영 시스템

코카-콜라는 환경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2000년부터 순차적으로 8개 전 생산공장에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자체 품질·환경·안전·보건 시스템인 KORE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이 외에도 정부의 녹색기업 인증을 공장에 도입하여 국내 환경 동향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에너지 절약 자발적 협약, 폐기물 감량 자발적 협약, 폐트병 재질구조개선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해 기업에 요구되는 환경적 이슈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자체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사내 직원들과의 환경 이슈 공유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들의 녹색경영 및 환경관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안공장은 2014년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녹색기업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설비 유지 보수, 용수/폐수 저감 TFT활동 추진을 통한 에너지 원단위 및 폐기물 재활용률 개선,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환경실적 개선 및 환경개선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협약 현황

항 목	여 주	양 산	광 주	천 안	평 창	철 원	남 원	의 왕
ISO14001	○	○	○	○	○	○	○	○
OHSAS18001	○	○	○	○	○	○	○	○
KORE(환경경영인증)		○	○	○	○	○	○	○
녹색기업	○		○	○				
에너지절약 자발적 협약	○	○						
온실가스 감축 협약				○				



“코카-콜라는 위기상황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환경사고 대응체계

코카-콜라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전사적 위기관리시스템(Incident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시스템은 코카-콜라의 소중한 자산인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의 손실을 위험 및 사고로부터 예방함은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당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8개 공장의 위기관리시스템은 개별적인 위기관리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을 '경미한 수준', '중간 수준', '중대한 수준'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예측 가능한 상황을 설정하는 등 상세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공장 위기관리시스템

위기관리팀은 위기상황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임시 조직으로써 해당 사업장 공장장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코카-콜라는 매년 철저한 환경·안전·보건 심사를 실시하여 자체 환경시스템 및 환경법규 준수를 실천합니다”



환경경영 심사

코카-콜라는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와 함께 경력과 자격을 갖춘 내부 환경안전인원을 활용한 자체 ESH 점검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코카-콜라 ESH 시스템 규격과 국내환경법규 준수에 반영하고 있으며 수검 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보건 심사의 구성

종 류	적용대상	감사자	적용내용
ESH 영향 및 측면 파악	ISO14001, OHSAS18001 규정에 의함	각 공장 ESH 담당자	ESH 경영시스템에 반영
환경영향 평가	신규 부동산 및 동산에 적용	외부 전문기관 및 내부 환경 전문가	신규계약서/지침서에 반영
영업/물류 ESH 점검	개별 공장에 적용(물류센터/공장)	사내 ESH 담당자	법규/코카-콜라 준수에 반영
협력업체 ESH 감사	원부자재공급 OEM업체 적용	사내 ESH 담당자	법규/코카-콜라 준수에 반영

2014년 ISO14001 외부심사 결과

		부적합사항	개선/권고사항	긍정적측면
코카-콜라 음료	여주	환경목표 관리가 효과적이지 않음 1) 세부목표가 정성적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성과평가가 용이하지 않음 2) 목표 및 세부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이 수립, 실행 및 유지되고 있지 않음	조직의 파트별 업무와 관련된 환경측면 및 환경 영향을 인식하여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환경담당자 교육 계획/실행 권고 폐수 누출을 예방하기 위한 배수 시설(배관) 등의 완전성 검사가 시행되지 않음	1. 유독물 저장소 유출방지시설 투자 2. 차량/지게차 정비고 개선으로 기름 유출 예방
	양산	환경 영향 평가 시 폐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염부하 물질 중 윤활제 사용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광주	폐수처리지침상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폐수처리 프로세스 및 세부운영지침이 누락되어 있음	폐수처리장 설비별 유지관리 Check List 작성 권고	
해태음료	천안	환경목표로 수립된 '1사 1하천 정화운동'의 경우, 달성도가 '0'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원인조사 및 대책이 표기되어 있지 않음		상황별 비상사태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주기적으로 훈련 실시
	평창	폐수관리 작업표준서상에 총 질소 및 총 인의 관리기준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TCCC(KORE) 기준이 실제로는 각각 5 미만, 2 미만이므로 공장 기준 역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수립되어 있지 않았음	실시된 소방종합훈련에서 문제점 및 대책방안으로 관련 물품구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이행 여부 확인 필요	
	철원	환경영향평가 프로세스가 효과적이지 못함 위험물질 관리와 관련하여 잠재적인 2차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음	주간 단위의 식수 인원 대비 잔반 발생량 등을 포함한 물질 수지 분석을 통한 자원절감 및 식단 개선에 활용 권고	저탄소 인증제품 생산(순수)
한국 코카-콜라	의왕		대기 방지시설 운영기준 수립 사무실 에어컨의 냉매량 기록 유지	에너지 사용량 관리, 저감 노력

“코카-콜라는 모든 공장에 동일한 환경성과지표를 도입하여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환경성과 평가

코카-콜라의 환경성과는 전 세계 코카-콜라 시스템에 모두 적용되는 EPM(Environmental Performance Measure) 지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코카-콜라는 현재 국내 공장과 국외 공장의 성과를 비교 검토한 후 그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EPM 지표는 코카-콜라가 제품의 다양화 및 생산력 강화를 위해 인수한 해태음료 생산공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각 공장의 환경성과를 비교·분석해 성과 향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코카-콜라 음료와 해태음료 공장을 대상으로 산출한 환경성과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환경성과지표(2014년)

구 분	단 위	여 주	양 산	광 주	총 계
용수 사용지수	용수 · L/제품 · L	2.62	3.11	2.49	2.73
폐기물 재활용지수	%	99.22	99.99	99.95	99.61
폐기물 발생지수	g/제품 · L	17.43	22.09	23.61	19.82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g/제품 · m³	28.40	37.08	29.95	31.07
전력사용지수	kWh/제품 · L	0.05	0.06	0.06	0.06

해태음료 환경성과지표(2014년)

구 분	단 위	천 안	평 창	철 원	익 산	총 계
용수 사용지수	용수 · L/제품 · L	2.9	1.16	1.16	7.04	1.81
폐기물 재활용지수	%	99.59	77.80	89.57	74.24	97.77
폐기물 발생지수	g/제품 · L	20.2	0.88	0.87	12.54	7.32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g/제품 · m³	14.4	0.25	1.02	1,035.10	5.07
전력사용지수	kWh/제품 · L	0.08	0.04	0.04	0.23	0.05

남원 & 의왕사업장 환경성과지표(2014년)

구 분	단 위	남 원	의 왕
용수 사용지수	용수 · L/제품 · L	4.67	2.31
폐기물 재활용지수	%	65.18	98
폐기물 발생지수	g/제품 · L	9.37	18.10
수질오염물질 배출지수	g/제품 · m³	46.43	-
전력사용지수	kWh/제품 · L	0.11	0.17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

**100년의 실천,
변화가 시작됩니다**

코카-콜라는 환경 보호를 실천합니다.

깨끗한 물 없이는 상쾌함을 담아낼 수 없기에
코카-콜라는 다양한 환경 보호 노력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을 막기 위해 재활용 · 재사용 방법을 찾아내고,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수질 오염,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기물 발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이어온 실천으로 환경 변화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제조공정에서 소중한 물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용수 재사용·재활용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용수 점검 및 관리 시스템

코카-콜라는 소중한 물을 아끼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카-콜라에서는 생산부문 내 각 부서 전문가들로 물 절약 TF팀을 조직하여 제품 제조과정에서 낭비되는 물 사용처가 있는지 조사하고, 이미 사용된 물이라 하더라도 공정 중에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어 개선하고 있습니다.



여주공장 RO설비 개선

구 분	개선항목	내 용	기대효과
여 주	RO 설비 자체 순환 시스템 구성	RO 시스템이 연속가동을 하도록 용수 재순환 시스템을 구성하여 멤브레인에 퇴적된 유기물이 변질되지 않는 조건을 구성하여 버려지던 용수량 절감	64,200 m³/년 절감
철 원	세척수의 공정용수 재활용	용수 절약 TFT를 구성하여, 세척수를 공정용수 일부분으로 전환을 통해, 원수 절약과 성수기 원수공급 능력 추가 확보 및 제품수의 원단위 감소 ※ 13년 용수사용지수 1.23에서 14년 용수 사용 지수 1.16로 약 6% 감소	2,636 m³/년 절감
광 주	RGB 세병기 개선	RGB 세병기 노즐 관련 다이아프램 밸브 교체로 용수사용 절감	10,000 m³/년 절감

이 밖에도 당사는 글로벌 코카-콜라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원수 취약성 평가(SVA, Source Vulnerability Assessment) 및 원수보호계획(SWPP, Source Water Protection Plan)을 수립해, 8개 전 생산 공장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카-콜라 제품 제조 공장의 물 사용 현황과 리스크 파악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5년 주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용수 사용지수가 2.87에서 2.73으로 개선되었으며, 양산공장은 지속적인 용수절감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원단위 13년 3.44에서 14년 3.11로 감소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용수 사용지수

(단위 : ℓ / FBL)

구 분	여 주	양 산	광 주	총 계
2012	2.63	3.45	2.73	2.86
2013	2.66	3.44	2.66	2.87
2014	2.62	3.11	2.49	2.73

해태음료 용수 사용지수

(단위 : ℓ / FBL)

구 분	천 안	평 창	철 원	총 계
2012	2.93	1.12	1.18	1.99
2013	2.93	1.12	1.23	1.79
2014	2.95	1.16	1.16	1.81

코카-콜라 음료 용수 사용량

(단위 : m³)

구 분	여 주	양 산	광 주	총 계
2012	1,037,626	631,072	325,155	1,993,853
2013	1,075,076	651,958	321,101	2,048,135
2014	987,579	591,841	307,875	1,887,295

해태음료 용수 사용량

(단위 : m³)

구 분	천 안	평 창	철 원	총 계
2012	381,787	134,794	97,012	613,593
2013	377,028	162,481	106,244	645,753
2014	353,974	177,410	104,542	661,946

“코카-콜라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엄격한 수질오염물질 관리 시스템

코카-콜라는 법적 기준보다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을 적용해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전 생산계획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개선함으로써 수질오염물질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코카-콜라는 각 공장 환경파트 주관으로 폐수처리장 운영에 안전을 기함으로써 폐수처리 효율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양산 폭기조 미디어 제거설비



광주 폭기조 비닐하우스

구 분	개선항목	내 용	기대효과
여 주	혐기성처리시설 설치공사	생물학적 처리의 취약점인 부하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폐수처리공정에 혐기성처리시설 설치	수질오염물질 저감
양 산	폭기조 미디어 제거설비 제작	폭기조 내 미디어 미생물의 DO부족으로 사상균이 많이 발생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	사상균 억제를 통한 미생물 침전효율 상승으로 폐수처리 효율 상승
광 주	폭기조 비닐하우스 교체	폐수처리장 폭기조 비닐 노후화에 따른 소손으로 폭기조 내 수온 적정유지가 불가능하여 교체함	미생물 활성화를 통한 수질 오염물질 배출저감
평 창	물처리 배관 약품 CIP주기 변경	물처리 배관 약품(산,알칼리 CIP) 주기 변경	최종 방류수(폐수) 수질 개선

코카-콜라 음료 폐수 발생량

(단위 : 톤/년)

구 분	여 주	양 산	광 주	총 계
2012	588,988	259,016	205,359	1,053,363
2013	621,936	296,615	202,463	1,121,014
2014	589,662	294,616	199,252	1,083,530

해태음료 폐수 발생량

(단위 : 톤/년)

구 분	천 안	평 창	철 원	총 계
2012	207,909	2,150	14,717	224,776
2013	199,726	6,037	19,536	225,299
2014	198,006	6,129	14,715	236,329

코카-콜라 음료 방류수 평균 농도

(단위 : mg/ℓ)

구 분	여 주		양 산		광 주		총 계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BOD	30	5.98	40	7.48	120	3.6	5.96
COD	40	12.14	50	16.48	130	15.0	13.84
SS	30	1.89	40	6.94	120	15.4	5.74

해태음료 방류수 평균 농도

(단위 : mg/ℓ)

구 분	천 안		평 창		철 원		총 계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법적기준	방류수 평균 수질	
BOD	120	1.01	40	1.97	40	1.70	1.09
COD	130	7.73	50	5.8	50	4.50	7.41
SS	120	2.63	40	0.47	40	0.01	2.47

“코카-콜라는 사업장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

비점오염원은 건기 시 토지표면에 축적된 다양한 오염물질이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어 수질 및 토양오염을 일으키는 배출원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강화된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코카-콜라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인 비점오염원 시설 투자를 통해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시설에는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크게 구분됩니다. 당사 천안, 철원, 남원사업장은 장치형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중에서도 여과형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여과형 시설은 강우유출수를 집수조에서 저장 후 모래·토양 등의 여과재를 통하여 걸러 비점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설을 말합니다.

천안공장 비점오염시설 처리 효율

측정항목	처리 전(mg/l)	처리 후(mg/l)	효율(%)
BOD5	10.7	1.4	86.9
SS	432.9	70	83.8



천안공장

비점오염원은 가정, 공장, 축사, 도로 등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발생하는 오염원입니다.



“코카-콜라는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량을 현저히 절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유해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코카-콜라는 철저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와 위기관리절차 구축, 비상사태 대비훈련 실시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감축 및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공장에서는 지정된 장소에만 유독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저장장소에는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설비 중 노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수시로 교체 및 보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광주공장 유독물 저장시설 방호벽 주위 트랜치 및 배수설비

구 분	개선항목	내 용	기대효과
광 주	유독물 저장시설 방호벽 주위 트랜치 및 배수설비 설치	유독물 저장시설 방호벽은 설치되었으나, 방호벽 외부로 누출 시 배수설비가 미흡	유독물 누출 시 외부로 누출 방지
남 원	가성소다와 황산알루미늄 저장시설 산, 알칼리 격벽 및 방호벽 설치	가성소다와 황산알루미늄 저장탱크가 혼재되어 있어 누출 시 화학반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	외부 누출방지 및 산, 알칼리 화학반응으로 인한 2차 사고 방지

여주공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단위 : 톤/년)

구 분	가성소다	황 산	질 산	염 산	과산화수소	PHMB	총 계
2012	253.5	0.0	5.2	1.56			260.3
2013	214.5	0.0	3.4	2.3	1.33		221.5
2014	210.8	0.0	4.4	0.66	1.44	3.46	220.7
용 도	세척용, 폐수pH조정	폐수pH조정	세척용	세척용	세척용	세척용	

양산공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단위 : 톤/년)

구 분	가성소다	황 산	질 산	총 계
2012	234.62	0.24	5.77	240.63
2013	241.53	0.08	7.44	249.05
2014	230.80	0.63	6.01	237.44
용 도	세척용, 폐수pH조정	폐수pH조정	세척용	

광주공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단위 : 톤/년)

구 분	가성소다	황 산	질 산	총 계
2012	97.60	38.60	0.16	136.36
2013	92.08	26.04	0.03	118.15
2014	104.99	27.43	0.03	132.45
용 도	세척용, 폐수pH조정	폐수pH조정	세척용	

천안공장 유해화학물질 관리 현황

(단위 : 톤/년)

구 분	가성소다	황 산	질 산	과산화수소	총 계
2012	221.1	1.9	3.6	12.6	239.2
2013	179.4	1.0	3.8	9.86	194.06
2014	145.4	0.5	2.5	9.01	157.41
용 도	세척용, 폐수pH조정	폐수pH조정	세척용	세척용	

“코카-콜라는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체계적·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체계적인 폐기물 관리 시스템

당사는 폐기물관리 작업표준지침을 통해 폐기물의 발생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장별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분리 배출 확대를 유도하고 신규 환경시설 도입 및 관리 환경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주공장의 폐수 슬러지 처리방식 개선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12년 84%에서 14년 99.6%로 약 15% 개선하였습니다.

구 분	개선항목	내 용	기대효과
여 주	탈수기 여과포 교체	탈수기 여과포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여과포 공극 막힘	탈수기 탈수효율 개선으로 슬러지 발생량 감소
양 산	환입품 보관장 및 파병장 신축, 보수공사 진행	환입품 보관장 적재공간 협소로 노천에 방치되는 폐기물 증가	보관장 증축 및 파병장 보수로 환경 측면적인 문제를 해소함
광 주	탈수기 여과포 교체	탈수기 여과포 장기간 사용에 따른 여과포 공극 막힘	탈수기 탈수효율 개선으로 슬러지 발생량 감소



양산공장 환입품 파병장



양산공장 환입품 보관장



광주공장 탈수기실 여과포 교체

코카-콜라 음료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구 분	년 도	여 주	양 산	광 주	총 계
폐기물 발생량 (톤/년)	2012	6,576	3,587	2,330	12,647
	2013	7,060	3,831	2,625	13,517
	2014	6,561	4,205	2,924	13,690
폐기물 재활용률 (%)	2012	62.95	98.36	99.92	84
	2013	99.92	99.22	99.97	99.7
	2014	99.22	99.99	99.95	99.6
슬러지 발생량 (톤/년)	2012	3,236	1,161	992	5,380
	2013	3,676	1,578	1,004	6,258
	2014	3,377	1,946	859	6,182

해태음료 폐기물 배출 및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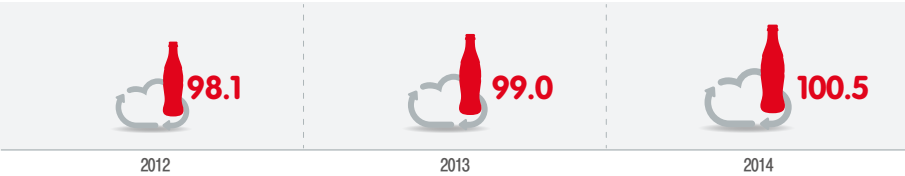
구 분	년 도	천 안	평 창	철 원	총 계
폐기물 발생량 (톤/년)	2012	1,730	30	76	1,837
	2013	1,931	30	87	2,048
	2014	2,425	135	78	2,638
폐기물 재활용률 (%)	2012	90.06	0	86	88
	2013	99.52	0	88	97
	2014	99.59	78	90	98
슬러지 발생량 (톤/년)	2012	126	0	0	126
	2013	199	0	0	199
	2014	212	0	0	212

“코카-콜라는 빈용기회수율을 높이고, 재활용분담금을 납입해, ‘지속가능 포장’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빈용기보증금 관리

당사의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용기 회수실적은 98%에서 약 100%로 향상되었습니다. 일선 영업 현장직원들을 대상으로 빈용기 병회수에 대한 인식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앞으로도 회수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용기보증금 대상 제품 용기 회수 실적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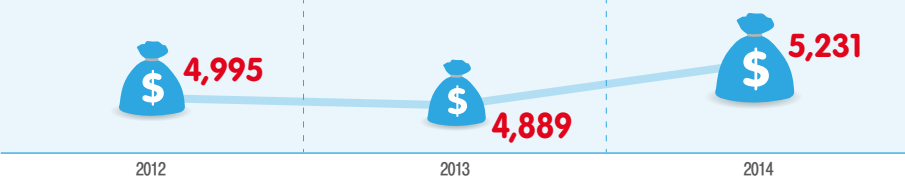


2014년 (사)한국용기순환협회 정기총회

재활용분담금 관리

당사는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을 통한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재활용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재활용 제도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분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코카-콜라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 체계

코카-콜라는 기후변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12월 환경부와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 협약(MOU)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온실가스 배출 허용치를 할당 받은 후 배출허용 총량과 실제 배출량 사이의 초과분 또는 감축분을 거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선 참여 주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 즉,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이 필수입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 직접·간접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조직경계를 설정하였으며,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 등을 선택해 배출량을 산정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코카-콜라음료는 2005년부터 매년 구축하고 있으며, 해태음료는 12년에는 3개 공장을, 14년에는 영업 물류까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범위

구 분	조직경계	기간경계
공장(3개)	여주, 양산, 광주	2005년 구축
정비센터(1개)	군포	
영업물류(25개)	안양, 하남, 인천, 일산, 남양주, 춘천, 수원, 강릉, 충주, 사상, 울산, 마산, 진주, 통영, 대구, 포항, 구미, 안동, 목포, 순천, 제주, 전북, 대전, 천안, 서산	

해태음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범위

구 분	조직경계	기간경계
공장(3개)	천안, 평창, 철원	12년 구축
영업물류(28개)	구리, 하남, 의정부, 가양, 고양, 안양, 이천, 원주, 강릉, 수원, 평택, 서부산, 동부산, 울산, 창원, 고성, 동대구, 서대구, 안동, 포항, 구미, 광주, 전북, 목포, 순천, 제주, 대전, 청주	14년 구축

당사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가이드라인, WRI/WBSCD의 GHG 프로토콜 가이드라인, ISO14064-1에 의거하여 구축되었으며, 산정범위는 크게 직접 배출(Scope1)과 간접 배출(Scope2, 3)로 구분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범위(Scope)

구 분		년 도	당사 해당사항
직접 배출	Scope 1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고정연소, 이동연소
간접 배출	Scope 2	- 기업의 활동 결과로 발생하였지만 다른 기관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 기업이 구입하는 전력/스팀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배출	전력구매
	Scope 3	임직원의 업무 출장/통근 등 기타 모든 간접 배출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



“코카-콜라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검증

코카-콜라 음료의 2014년도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은 45,319톤으로 전년 대비 1,684톤이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활동 및 지속적인 설비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 또한 전년 대비 0.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업장별 에너지 원단위도 꾸준히 낮춰 가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톤 CO₂e)

항 목		2012	2013	2014	3년 평균 배출량	비 율
총배출량		48,589	47,004	45,319	46,971	100%
Scope 1	고정연소	15,957	15,226	14,084	15,089	32.1%
	이동연소	11,486	11,290	11,291	11,356	24.2%
Scope 2	전력구매	21,146	20,489	19,944	20,526	43.7%
원단위(톤 CO ₂ /제품 · m ³)		0.070	0.066	0.066	0.069	100%

2014 코카-콜라 음료 & 해태음료 사업장별 에너지 사용량 및 원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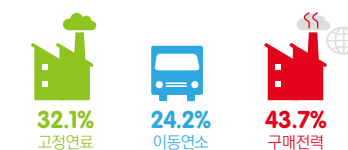
(사용량 단위 : TJ, 원단위 : MJ/제품 · l)

법 인	사업장	사용량	원단위	법 인	사업장	사용량	원단위
코카콜라음료	여주	383	1.02	해태음료	천안	216	1.80
	양산	169	0.89		평창	54	0.35
	광주	109	0.88		철원	32	0.36
	영업물류	198	0.29		영업물류	70	0.19
	총계	859	1.24		총계	372	1.02

2012~2014년까지 코카-콜라 음료의 3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46,971톤으로, 배출원별 배출비중은 직접배출(Scope 1)이 56%, 간접배출(Scope 2)이 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접 배출의 경우 고정연소가 32.1%, 이동연소가 24.2%, 간접 배출은 전력구매가 43.7%를 차지했습니다. 당사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출원		주요 배출시설
직접배출	고정연소	보일러 및 취사설비(LNG), 취사설비(LPG), 난방기(등유)
	이동연소	승용차량(휘발유, LPG), 화물차량(경유), 지게차(LPG, 경유), 특수차량(경유)
간접배출	전력구매	공장(생산라인, 폐수처리장), 영업물류 사무실 및 조명시설

코카-콜라음료 3개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 비중



14년 해태음료 온실가스 배출원별 비중



온실가스 인벤토리 검증은 한국품질재단을 통해 외부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국제규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코카-콜라는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구매로 구분해, 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당사의 공장 및 영업 물류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부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장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유형은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구매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의 경우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LNG 보일러 및 난방용 증기설비가 주요 설비입니다. 영업 물류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유형 또한 고정연소, 이동연소, 전력구매로 구분하였습니다. 고정연소는 영업소에서 사용한 난방설비가 주요 설비이며, 이동연소는 영업용 휘발유 · 경유 차량 및 LPG를 사용하는 지게차가 주요 설비입니다.

코카-콜라음료는 올해부터 기타 간접사용량(Scope3)에 대해 산정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올바르게 시스템에 신고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기타 간접사용량을 산정하였습니다.

2014 코카-콜라 음료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 톤 CO₂)

구분	여 주	양 산	광 주	영업물류	총 계
총배출량	19,144	8,417	5,423	12,337	45,319
고정연소	8,943	3,001	1,746	395	14,084
이동연소	900	321	185	9,886	11,291
전력구매	9,301	5,095	3,492	2,056	19,944
기타 간접사용량	114	41	365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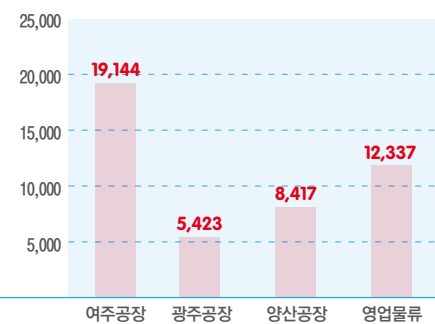
※ 기타 간접사용량은 총 배출량에서는 제외하여 산정함.

2014 해태음료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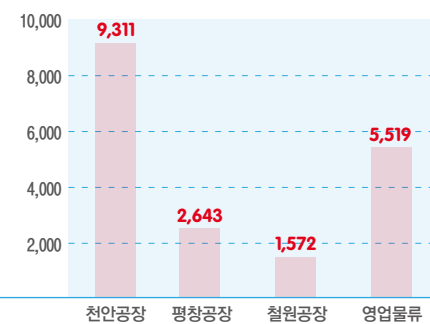
(단위 : 톤 CO₂)

항목	천 안	평 창	철 원	영업물류	총 계
총배출량	9,311	2,643	1,572	5,511	19,037
고정연소	4,739	6	2	57	4,803
이동연소	177	69	43	4,921	5,210
전력구매	4,394	2,568	1,527	540	9,024
원단위(톤CO ₂ /제품 톤)	0.078	0.017	0.018	0.015	0.052

14년 코카-콜라음료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14년 해태음료 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코카-콜라는 온실가스 / 에너지 감축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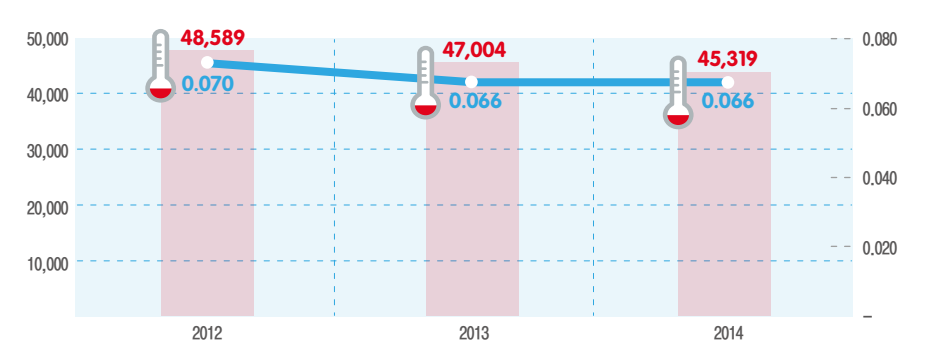
온실가스 / 에너지 절감 활동

코카-콜라는 LG그룹의 그린경영 전략에 맞춰 기후변화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에너지시설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절감활동 및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온실가스 절감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원단위가 12년 0.70에서 14년 0.66으로 6% 개선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 온실가스 배출현황

사업장	개선항목	개선내용	개선효과
여주공장	시럽실 CIP 폐열회수를 통한 LNG 사용량 절감	시럽실 CIP 후 고온의 열폐수가 회수되지 않고 폐수로 배출되고 있음	LNG 절감량 : 40,830Nm ³ /년
	커피 브랜딩 CIP 응축수 회수 시스템 개선	판형열교환기 스팀공급 시 트랩 노후 및 배압으로 인해 열교환기의 온도 가열시간이 오래 걸리고 워터햄머 발생으로 배관수명 저하	LNG 절감량 : 20,910Nm ³ /년
양산공장	생산현장 고압 및 저압 헤더 노후 글로벌 밸브 교체	기존 글로벌 밸브 장기간 사용으로 시트가 손상되어 스팀 누수가 발생	LNG 절감량 : 22,655Nm ³ /년

14년 코카-콜라음료 온실가스 배출량 및 원단위 추이



“코카-콜라는 탄소성적표지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탄소성적표지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제도 및 탄소성적표지인증 제품 현황

당사는 2008년 정부에서 추진한 탄소성적표지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국내 음료업계 최초로 음료제품에 대한 탄소성적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탄소성적표지는 기업이 제품 제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자발적으로 파악하여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수송, 유통, 사용, 폐기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제품에 표기토록 하여,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코카-콜라 500ml PET는, 음료업계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휘오 순수 2,000ml와 500ml 역시 국내 생수 제품으로는 최초로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해 코카-콜라의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생수제품의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은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탄소배출량의 경우 100ml 당 23gCO₂ 이하, 혹은 탄소성적표지 1단계 인증 시 탄소배출량 대비 4.24% 이상을 감축해야 합니다. 휘오 순수의 탄소성적은 각각 92gCO₂/개(500ml), 281gCO₂/개(2,000ml)으로, 100ml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8.4gCO₂와 14gCO₂입니다. 또한 휘오 순수는 기존 먹는 샘물 '순수 100'을 리뉴얼한 제품으로, 국내 최초로 13.5g 페트병(500ml 기준)을 사용하여 기존 제품에 비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2% 감축하였습니다. 또한 마신 후 쉽게 구기거나 비틀 수 있어, 쓰레기 부피를 줄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도 당사는 탄소성적표지 제도의 발전과 소비자 홍보를 위해 환경부와 카카오톡이 함께하는 Eco Stamp 캠페인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당사는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와 태국정부에서 주관한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 국제 세미나'에서 탄소성적표지 도입 우수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아시아 탄소발자국 네트워크'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라벨링을 운영 중(또는 도입 예정)인 아시아 9개 국가 14개 기관이 가입하여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UN ESCAP)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탄소성적표지 인증 및 저탄소제품을 계속 확대하여 저탄소 녹색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소성적표지 인증 현황

(단위 : gCO₂/개)

제품명	탄소배출량	저탄소제품(2단계) 인증취득일	탄소배출량(1단계) 인증취득일
코카-콜라 500ml	225	2012.03.16	2009.03.17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2,000ml	281	2012.08.29	2010.11.24
휘오 순수 다이아몬드 500ml	92	2012.08.29	2010.11.24

녹색구매 구분



탄소 배출량



저탄소 제품



GR 마크



고효율 기자재



환경 마크

“코카-콜라는 2008년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친환경 제품 구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구매 실적

당사는 2010년 6월, 친환경상품의 생산·구매를 통한 녹색생산과 소비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친환경상품 보급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산업계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에 참여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 사용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는 녹색구매는, 새로운 성장동력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부터 녹색구매 시스템을 구축하여 녹색구매 실적 파악 및 소비확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구매실적 중 '환경마크 인증 제품'과 '리필제품', '재생제품', '고효율제품' 구매실적을 녹색구매 활동으로 구분해 당사의 녹색구매 수준을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MRO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구매된 항목 중 2014년 약 4.5%가 친환경 제품 구매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카-콜라 각 사업장 녹색구매 현황

(단위 : 천원)

사업장	연 도	총 구매액	친환경상품			녹색구매율(%)
			환경마크	리필/고효율제품	소 계	
광주	2014	437,985	6,489	670	7,159	1.6%
	2013	273,038	5,193	188	5,381	2.0%
	2012	240,810	4,470	146	4,616	1.9%
양산	2014	468,763	2,385	1,669	4,054	0.9%
	2013	381,675	1,378	875	2,253	0.6%
	2012	223,455	1,421	718	2,139	1.0%
여주	2014	1,427,938	92,275	1,431	93,706	6.6%
	2013	776,134	76,031	1,102	77,132	9.9%
	2012	688,382	74,278	1,382	75,659	11.0%
전체	2014	2,334,686	101,149	3,770	104,919	4.5%
	2013	1,430,847	82,602	2,165	84,766	5.9%
	2012	1,152,647	80,169	2,246	82,415	7.2%

※ MRO 전체 구매실적에서 녹색구매 대상품목으로 볼 수 없는 일부 구매품목은 제외함

① 자장품 : 정수카트리지 등 ② 수선유지보수품목 : 전동청소차, 기어/펌프/벨트 등 ③ 간접재료비 : 스트레치필름, 희석제, 청관제 등



ACFN 2014 세미나(태국) 참가



저탄소제품 인증서(코카콜라500)



저탄소제품인증서 순수다이아몬드 500ml & 2L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서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식



“환경인증제도 참여! 지구가 다시 태어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원은 기업이 자사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발적으로 표기도록 하는 탄소성적표지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온실가스 양을 고려한 소비활동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기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국민)가 함께 하는 친환경 소비촉진에 코카-콜라의 마음이 보태지기를 기대합니다.

Special interview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급속한 지구온난화와 자원 고갈, 환경안전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범 지구적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산업으로 육성하는 환경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원은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녹색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육성 발전을 위한 차세대 핵심기술 개발, 토양오염 확산방지 사업, 환경산업 수출지원, 환경인력양성사업, 환경신기술인증검증제도 운영, 환경보건안전 강화, 환경산업기술정보 수집 및 보급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산업과 사회를 지속 가능한 생산 소비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탄소·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 환경마크제도 운영, 기업환경경영활동지원, 녹색소비 촉진 업무 등 제반 업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국민들을 친환경생활로 유도하고,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원이 세계적인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문화 확산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탄소성적표지제도 소개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부-기업-개인'의 강력한 협력 체제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정부 영역에선 제도를 만들고, 기업과 개인 영역에선 그것을 준수·홍보함으로써,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향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이 추진 중인 탄소성적표지제도는 그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 수명 주기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으로 환산해, 그것을 라벨 형태로 제품에 부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겐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토록 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 선택 과정에서 그것을 고려토록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취지에서 출범한 우리 원의 탄소성적표지제도는 2009년 2월 탄소성적표지제도(탄소배출량 인증제도, 1단계) 도입, 2011년 11월 저탄소제품 인증제도(2단계), 2014년 9월 탄소중립제품 인증제도(3단계) 등의 과정을 거쳐, 세계 최초로 '산정-감축-상쇄'의 3단계 인증 선진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탄소성적표지제도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선 기업들의 동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탄소성적표지 내용을 삽입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온실가스 양을 스스로 통제한다면, 환경 문제를 향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폭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에 붙여진 탄소성적표지 라벨을 통해 소비자들의 환경 인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걸맞게 탄소성적표지제도를 향한 기업들의 활동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말까지 총 191개 기업이 1,721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탄소성적표지제도 인증을 받았고, 저탄소제품 인증(2015년 5월말, 299개 제품)을 기준으로 총 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됐습니다.

같은 시기 탄소중립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참여해, 총 13만 7천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에 발맞춰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향한 국민들의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중앙일보 친환경제품인증 국민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90.6%가 탄소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우리 원 역시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향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그린카드제 실시, 탄소성적표지 상설 전시관 전국 확대 설치, 어린이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인증제품 홍보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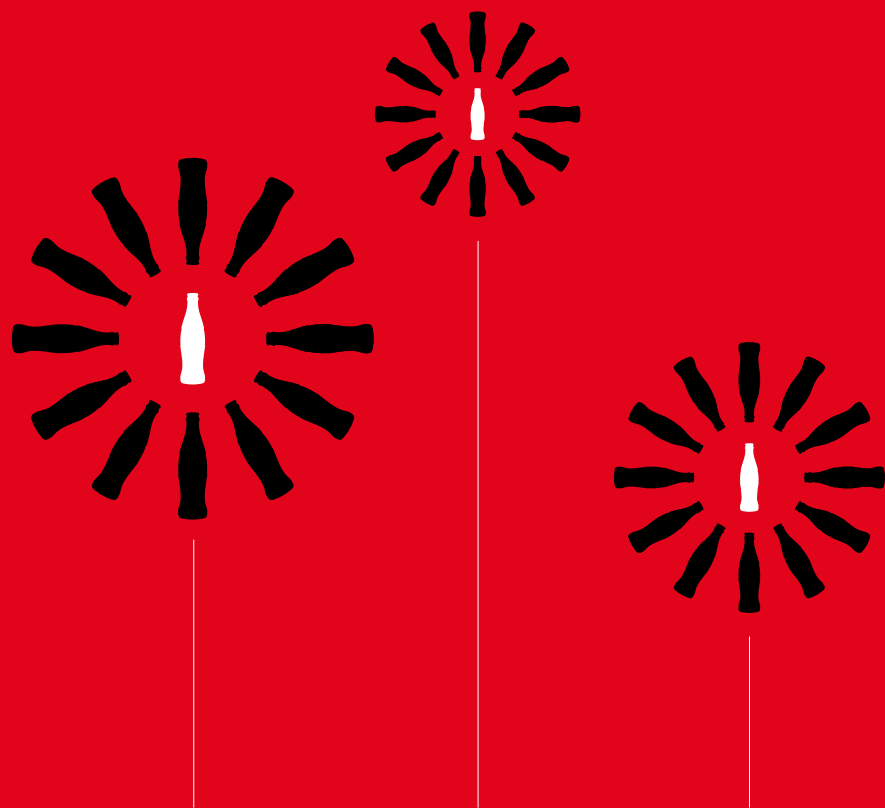
특히 그린카드제는 인증제품 구매 시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탄소성적표지제도를 수단으로 한 '정부-기업-개인'의 환경 협력 체제는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역시 탄소성적표지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코카-콜라의 환경경영 업그레이드를 위한 당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간 코카-콜라는 다양한 환경 사업으로, 국내 환경 문제 개선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여주와 광주 공장이 환경부로부터 녹색사업장으로 지정을 받을 만큼 환경친화적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탄소성적표지 인증제품이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코카-콜라가 이미 구축된 친환경 시스템을 바탕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과 소비 확산에 힘을 보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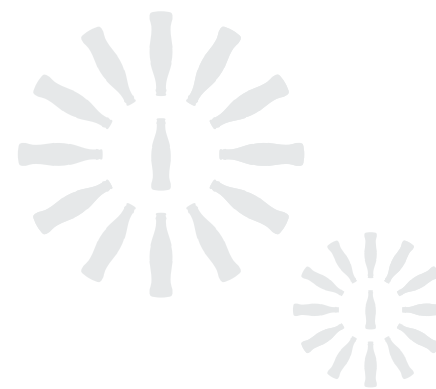
한편 코카-콜라가 국제적인 환경 사업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환경계획(UNEP) '지속가능 소비·생산 10개년 계획(10YFP)'에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기구의 취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소비·생산 패턴'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패턴'으로 바꾸자는 데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 전 과정에 걸쳐, 자원 효율성은 높이고, 오염물질 배출량은 줄이자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이러한 UNEP 활동에서도 환경 분야 선도 기업으로서 리더십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간 국내적으로 다양한 환경 사업을 펼쳐왔던 코카-콜라가 세계적인 친환경 기업으로서 위상을 다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

100년의 동행!
소중한 미래를 지켜줍니다



코카-콜라는 세상과 의미있는 동행을 합니다.

그동안 코카-콜라는 'Earth Hour' 캠페인에 참여해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어린이 그린리더십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지켜왔습니다.

코카-콜라는 지속적인 환경의식 함양에 힘쓰겠습니다.

코카-콜라와 함께한 100년 동행이 환경 변화를 앞당깁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환경의식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지속가능경영

코카-콜라사는 '지속가능한 지역 사회 없이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도 없다.'는 경영 이념 아래,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 기후변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류의 소중한 자원인 수자원 보호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물 중립(Water Neutrality)' 실현이라는 목표하에 음료 생산에 사용된 만큼의 동일한 물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물의 재활용 및 지역 사회 물 보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환경 교육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

2011년에 첫 선을 보인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습지 및 생태 현장 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습지 보존의 중요성을 배우고, 물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 및 자연 보존에 대한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코카-콜라의 대표적인 어린이 환경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환경 변화가 가속화되고 전 세계적으로 습지 보존의 노력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 미래의 환경을 이끌어갈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고창 운곡습지, 서울 밤섬, 강화 갯벌, 창녕 우포늪에서 총 4회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160명의 그린리더를 양성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을 수료한 학생 가운데 현장참여도와 교육 후 제출하는 환경보호 에세이의 환경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그린리더 8명이 선발되었으며, 싱가포르의 유일한 습지보호 지구로 지정된 '순계이블로 습지 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도심 내 최대 식물원인 '보타닉 가든', '가든스 바이더베이' 등을 직접 탐사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은 어린이 그린리더십 과정은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국내 습지인 서울 밤섬을 비롯해 두웅 습지, 송도갯벌과 보성 벌교갯벌 등 총 4곳에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며 최우수 그린리더에게는 글로벌 그린리더로서의 성장 발판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 환경 연수 특전이 주어집니다.



코카-콜라 어린이 그린리더십

“코카-콜라가 9년째 참여 중인 ‘Earth Hour’ 캠페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전파합니다”



빗물 재사용을 통한 물의 소중함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

2013년 첫 선을 보인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는 학교 내 2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직접 빗물을 모으고 조경 / 소방 /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어린이 환경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경기 지역 3개 학교로 출발한 빗물학교는 2014년 3개 학교를 추가 선발하였으며, 올해도 확대 예정입니다. 빗물활용은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등으로 갈수록 지역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줄어들어 따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될 아이들에게 빗물 이용의 중요성, 수질 측정 등 수자원 교육을 통해 빗물이 소중한 자원임을 알려주는 환경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모아진 빗물로 학교 텃밭을 가꾸는 과정을 통해 빗물 이용 가치를 자연스럽게 일깨우고 그린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를 통해 약 52만 리터의 빗물을 모아 조경 및 청소용수로 재사용했습니다.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

OFF

지구를 위한 1시간 - Earth Hour

'Earth Hour' 캠페인은 세계자연기금(WWF)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인식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캠페인으로,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일반 시민, 기업, 지역사회, 단체가 한 시간 동안 가정 및 건물 등의 전등을 자발적으로 소등하며, 환경문제와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변화를!'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올해 Earth Hour 캠페인은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해 전 세계 172개국에서 수십억명이 참여했으며, 콜로세움, 에펠타워와 같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곳이나, 세계적인 명소 10,400 곳에서 함께 전등을 끄며 동참했습니다.

코카-콜라사는 2007년 1회부터 'Earth Hour'에 참여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부터 주요 코카-콜라 사업장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1시간 동안 전등을 끄며, 기후변화를 위한 작은 노력에 동참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코카-콜라 병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구에게 더 행복한 100년을 함께 약속하자는 의미를 담은 초를 제작해 제공했으며, 기업트위터(twitter.com/CocaCola-Korea)와 파워블로거 프로그램, '코-크 프렌즈'를 통해 대중들에게 Earth Hour를 알리고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어스아워(Earth Hour)

“코카-콜라는 생산공장 주변의 지역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환경개선을 위한 하천 환경정화활동

코카-콜라 여주공장은 공장 주변에 위치한 점봉천 환경정화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주공장 임직원들은 2013년에도 세 차례에 걸쳐 점봉천 주변에 버려진 폐비닐, 담배꽂초, 페스티로폼, 휴지 등을 수거하며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한다는 자긍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 신록사 주변, 황학산 등산로 주변 일대에서 환경보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양산공장은 양산천 일대 정화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투기된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양산천을 정화하고 관리하는 상시 체계를 구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NGO와 지속적인 환경 파트너십을 맺어 친환경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광주공장은 산동고 주변 일대에서, 천안공장은 공장 인근의 천안천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생수를 생산하는 평창공장도 철원공장도 공장 인근의 진조리 직동과 사곡천에서 하천보호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남원공장은 울천천에서, 의왕공장은 안양천 지류에서 꾸준한 활동을 전개 중입니다.

구 분	연 도	참석횟수	참석인원(명)	수거한 쓰레기량(kg)
여 주	2012	2	43	380
	2013	3	61	300
	2014	2	37	200
양 산	2012	12	75	980
	2013	15	89	1,500
	2014	15	150	1,800
광 주	2012	2	62	300
	2013	2	52	500
	2014	2	72	300
평 창	2012	1	10	300
	2013	2	25	540
	2014	2	38	680
철 원	2012	1	9	100
	2013	1	17	50
	2014	1	43	30
익 산	2014	1	28	50
남 원	2012	4	30	1800
	2013	4	46	1400
	2014	4	36	900



여주공장 남한강 정화활동



양산공장 해운대 정화활동



광주공장 진수공원 정화활동



천안공장 태조산 정화활동



평창공장 직동천 정화활동



익산공장 2공단공원 정화활동



남원공장 울천천 정화활동

“2015 코카-콜라 환경보고서 용어 사전”

고정배출원

보일러, 로, 버너, 터빈, 히터, 소각로, 엔진, Flare 같은 고정장비에서 화석연료의 연소로 열, 증기, 전력 등의 생산을 통해 발생하는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Beverage Container Deposit System)

사용된 용기의 회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용기 사용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해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빈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동배출

공장 내에서의 이동 및 상품 · 원료 운반 등에 사용되는 자동차, 트럭, 버스, 기차, 비행기, 보트, 선박, 바지선, 항공기 등과 같은 수송 장치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생산품의 출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 제품이 공정 · 연료효율 개선 등을 통해 이전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경우, 저탄소제품 인증 지침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탄소성적 표지, 저탄소제품 인증표지를 사용하도록 승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탄소성적표지 제도

제품의 생산 · 유통 · 소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에서 인증하여 주는 제도로,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을 유도하여 시장 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한국 코카-콜라 시스템

한국 코카-콜라와 코카-콜라 음료로 구성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CCKC(Coca-Cola Korea Company)

한국 코카-콜라 유한회사의 약자입니다. 원액 제조 및 상표 보호, 브랜드 프로모션을 담당합니다.

CCB(Coca-Cola Beverage Company)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의 약자입니다. 국내 코카-콜라 제품의 생산 · 유통 및 고객지원 활동을 담당합니다.

FBL(Finally filled Beverage Liter)

최종 생산된 음료 제품을 부피(리터)로 환산하여 사용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코카-콜라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Utility(물, 전기, 연료 등)의 효율적인 사용을 원단위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용수 사용량(L / FBL)은 총 생산된 음료 제품 1리터를 만들기 위해 사용된 물의 양을 의미하며, 전력 사용량(kWh/FBL)은 제품 1리터를 생산하기 위하여 몇 kWh를 사용하였는지를 나타냅니다.

KORE(Coca-Cola Operating Requirements)

코카-콜라 고유의 품질 시스템, 환경, 제품의 품질, 안전의 영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관리 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이는 국제규격인 ISO9001, ISO14001, OHSAS18001 등의 국제기준 요구 사항에도 부합됩니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생산과 관련된 원자재를 제외한 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모성 자재를 의미합니다. 기업 소모성 자재 또는 기업 운용 자재라고도 합니다. 필기구부터 복사용지 · 프린터 토너 등의 사무용품이 대표적이며, 청소용품과 각종 설비, 장비를 정비하는 데 사용하는 공구 · 기계부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RGB(Returnable Glass Bottle)

1회용 유리병이 아니라 회수하여 깨끗이 세척해 재사용하는 유리병을 말합니다.

TCCC(The Coca-Cola Company)

원액과 시럽을 생산 · 판매하는 코카-콜라사의 약자입니다. 생산된 원액과 시럽은 코카-콜라사의 완제품을 생산 · 판매하는 전 세계의 보틀러에게 공급됩니다.

